

신약의 희년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12/30 월요일

아침의 누림

레 25:10, 13

10 너희는 오십 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그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13 이 희년에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요 8:32, 36

32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요 1:16-17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빌 2:12-16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14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16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주십시오.

희년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해로서, 이사야서 61 장 1 절과 2 절에서 예언되었으며, 누가복음 4 장 16 절부터 22 절까지에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구약의 예표에서 희년은 일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예표의 성취에서 희년은 신약 시대 곧 은혜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 이 시대는 죄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사 49:8, 눅 15:17-24, 고후 6:2)이며, 죄의 속박 아래 억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때(롬 7:14-8:2)이다. 믿는 이들이 은혜 시대에 희년을 누리는 것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데, 이 누림은 천년왕국에서 희년을 총만하게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희년을 최고도로 총만하게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레 25:10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희년에는 자신의 소유지 곧 자신의 몫으로 할당받은 좋은 땅을 판 모든 사람이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었고(레 25:10, 13, 28), 자신을 노예로 판 모든 사람이 자유를 되찾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39-41 절).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과 자유를 되찾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신약의 희년에 믿는 이들이 자신이 잃은 신성한 소유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신성한 가족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족은 좋은 땅의 일부를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의 일부를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받은 후에 어떤 이들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몫의 땅을 팔았고(레 25:25 상), 그 결과 그들의 소유지, 그들의 유업을 잃었다. 또 어떤 이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어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팔았고(25:39 상), 그 결과 자유를 잃고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 가난한 좋은 땅은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골 2:9),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소유, 사람의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였으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죄와 사탄과 세상에 노예로 팔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하나님의 신약의 구원은 타락한 사람을 자신의 신성한 소유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와 사탄과 세상의 노예 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되게 하여, 자신의 신성한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통을 누리게 한다.(레 25:10 각주 2)

희년에는 두 가지 주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이 모두 자기의 잃어버린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여러분의 소유지이신 하나님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희년이 되시게 해야 한다. 그분을 얻으면 여러분은 소유지를 되찾게 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하시어,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업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 주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자유가 없고 자신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어 더 이상 노예 노릇을 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는 노예들이 아니라 자유인들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유지이신 하나님을 되찾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 아니라 해방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 장 28 절에서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다(행 26:18, 엡 1:14, 골 1:12). 이것이 바로 희년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1장, 22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1장

12/31 화요일

아침의 누림

눅 4:18-19, 21

18 “주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 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19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시자,

눅 4:22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라고 하니,

마 11: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시 45:2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수려하시며 입술에 은혜가 부여졌기에 하나님은 왕께 영원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벧전 1: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시 116:4-5

4 그러나 나는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네. “오, 여호와님! 기도드립니다. 제 혼을 건져 주십시오.”

5 여호와와는 은혜 베푸시며 의로우시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희년은 황홀경의 시대이다. 신약 시대는 황홀경의 시대이고, 그리스도인은 황홀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오십여 년 전에 나는 니 형제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친 적이 없다면 아직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는 미쳐야 하며, 사람에게는 정신이 온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우리는 한편으로 기쁘게 환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이 온전하며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한다. ...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도 황홀경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다면 아직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 하나님을 충분히 누렸다면 반드시 기뻐서 될 것이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누린다면 반드시 미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2장, 30-31쪽)

오늘의 읽을 말씀

지금까지도 정치인들과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써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은 ‘사상’을 고안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받는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 어떤 학설이나 ‘사상’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학설이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여호와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다. 주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 포로 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시며,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셨다. 이 희년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은혜의 해이다. 희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이다.

‘희년’은 걱정이나 근심, 염려나 고심, 부족이나 결핍, 병이나 재난 같은 문제가 전혀 없이 유익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스럽다. ...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며, 환경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릴 때에만 모든 일이 만족스럽게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4 장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모든 일이 만족스럽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1 하-13)

바깥의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걱정 없이 온갖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희년의 시대이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직 희년이 없는 것이다. ...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고 그분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희년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그 일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희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면,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던 것이 마음에 들게 되고, 만족스럽지 않던 것이 만족스럽게 될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희년이 온다. ...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희년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의해 살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의 희년이 아니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1장, 19, 23-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2장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엡 1:13-14

13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14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레 25:11-12

11 오십 번째 되는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수확한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어들여서도 안 되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를 거두어들여서도 안 된다.

12 이 해는 희년이며,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을 수 있다.

계 21:5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다.”

누가복음 4 장 18 절과 19 절에 있는 희년의 선포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을 지배하고, 15 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희년에 대한 탁월한 예시이다.

탕자는 소유를 팔았고, 자기 자신도 팔았다. 어느 날 탕자는 그의 소유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희년 곧 해방이었으며, 모든 것이 유쾌하고 만족스럽게 되었다. 아버지의 집에는 누림과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 뿐

1/01 수요일

아침의 누림

눅 15:20, 23

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레위기 25 장은 희년이 되었을 때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자라난 것을 거두어들여서도 안 되며, 다만 먹고 누리라고 말한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으며, 다만 먹고 누릴 뿐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오직 땅이 직접 산출한 소산만을 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이 땅의 소산을 먹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먹으면 되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 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품꾼이 되겠다고 한 말을 듣지 않은 이유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주어서 그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했다. 여기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기쁘게 맞아들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희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 장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아들인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2 장, 35, 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모두는 이전에 아버지와 그분의 집에서 멀리 떠나간 탕자들이었다. 아버지와 그분의 집에서 멀리 떠나갔을 때 분명 우리는 우리의 유업에서도 멀리 떠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와 그분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탕자가 모든 것을 허비한 후,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궁핍하게 되었다(눅 15:14). 그러자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니다.”(15:15-16)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15:17-19) 여기서 우리는 탕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파종하고 거두고 추수하는(희년의 해에 금지되어 있던 일)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했음을 본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품꾼처럼 수고하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 레위기 25 장에 있는 예표에 의하면, 희년에는 씨를 뿌리거나 자라난 것을 거두어들이거나 추수할 수 없었다. 그해에는 땅에서 어떤 수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탕자는 일꾼이 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는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누리기 위해 아버지께 돌아와야 했다.

탕자는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눅 15:21)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의 종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걸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15:22-23)라고 말했다. … 살진 송아지는 우리의 유업이신 풍성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골로새서 1 장 12 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것은 성도들의 몫이신 그리스도이다. 탕자가 돌아온 후, 그와 아버지와 집안사람들은 유업을 누리기

시작했다. 여기 탕자의 사례에서 우리는 신약의 희년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본다.(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6, 552-5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 권, 희년, 3-4 장

1/02 목요일

아침의 누림

눅 10:39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사 30:15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아와 안식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건만 너희는 원하지 않아

마 11:28-29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 7:37-38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주 예수님의 변형은 왕국이 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 왕국은 바로 변형되신 한 사람이다.

마리아는 합당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1) 마리아는 다른 누군가의 발이 아닌,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 그녀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자라는 가장 짧고 빠른 길이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많은 사람은 이 길을 발견했다. 귀용 부인은 “모든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출된다.”라고 말했다. 바울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당부했다(살전 5:17). 어떤 사람이 너울을 벗은 얼굴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통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고후 3:18).

(2)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 이것은 그녀가 은혜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벧전 5:5). 겸손은 우리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전혀 주의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깊은 속에서부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8 권, 일반 메시지(2), 39 장, 29-3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3) 마리아는 ‘앉아 있었다’. ... 마리아는 그녀의 언니처럼 분주하지 않았다. 주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종종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이다. ...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분주한 것은 눈이고, 혼의 기능들 중에서 가장 분주한 것은 생각이다. 분주한 사람들은 쉽게 계시를 받지 못한다.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동요하는 사고는 끊임없이 이는 호수의 물결과 같으며, 그러한 호수는 결코 물가에 있는 꽃과 나무의 모습을 분명하게 반영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한다면, 잠잠히 머무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4)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으로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은 주님께 그분 자신을 그녀에게 전달해 주실 기회를 드렸으며, 그 결과 마리아는 주님 자신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주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주님의 말씀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우리가 어떤 설교에서 그저 사람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일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8 권, 일반 메시지(2), 39 장, 30-31 쪽)

희년에서 소유와 자유는 둘 다 좋지만 차이가 있다. ... 우리는, 자유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온다. 소유는 하나님이며, 자유는 누림이다. 우리에게 소유가 있고 우리가 이 소유를 누린다면, 결국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된다. 무엇이 자유인가? 자유는 억압과 부족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지는 않지만 매우 가난하다. ... 가난은 정말로 큰 속박이다. ...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날 그분은 우리의 소유이시다.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된다!

우리는 가난해져서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노예로 팔아 버리게 되었다. ... 그러나 희년이 되면 우리는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갈 뿐 아니라, 또한 자유를 얻어 노예 노릇 하는 속박에서 해방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유와 민권과 인권에 대해 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다. ... 사람들은 자유를 말할 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문제가 생겼고, 많은 악한 일이 발생했다. ...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전히 참된 자유가 없게 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 년, 4 권, 희년, 3 장, 41-4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8 권, 일반 메시지(2), 39 장

1/03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7: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롬 8:2-4 (2)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 2:20-21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 1:16-17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었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죄짓는 요소와 죄의 중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우리는 그의 포로가 되었다. ... 먼저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불법적인 주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만 지을 수 있는 정도까지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 성경에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바알세불이다. ... 바알세불은 '똥 더미의 주(主)'로서 '파리들의 주'라는 뜻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 사탄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파리들을 이끌어 똥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는 파리들의 주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파리들로서 사탄을 따라다니며 '똥을 먹는다'. ... 고상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파리이다. 그들이 가는 무도회는 약간 고상한 장소이지만, 세련된 똥 더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알세불은 고상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모든 파리도 그와 같이 고상해 보이게 한다. 파리들인 그들은 보기 좋게 차려입어 아주 우아하게 보인다. 그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아주 고상해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똥을 먹고 있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3장, 49-5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무언가에 중독되어 바알세불이 우리를 선동하면, '코가 꺾여' 꼼짝도 못 하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나중에 우리는 "난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거지? 왜 이런 걸 했을까?"라고 하며 후회한다. 사람마다 마음속에서는 정말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요 8:34)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확실히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다(비교 롬 7:24). ...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한다. 나무나 돌은 화를 내지 않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 나는 지금 화를 내더라도, 삼십 초만 지나면 화가 없어지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런가?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해방했고, 내가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얻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갖는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려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생명의 영이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바로 주님 자신이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 즉 생명의 영이 되셨다. 생명의 영은 하나의 법을 갖고 계신다. 법이 없는 생명은 없으며, 생명은 일종의 법이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한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그 순간 희년의 자유를 누렸을 뿐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하여 일생 동안 이 자유를 누려야 하고 영원토록 누려야 한다. 이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데에서 온다. 그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소유가 되셨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만 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 ...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많은 것에 얽매일 것이다.

희년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누림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에게 노예 노릇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 그러므로 분투하며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 결심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반드시 주님을 누려야 한다. 참되시며 살아 계신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분을 누려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해방과 자유가 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소유를 갖게 되고 자유도 갖게 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3장, 50-53쪽)

추가로 읽을 말씀: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4-69

1/04 토요일

아침의 누림

행 26: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 4:4-7, 11-13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의 생활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누림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누림으로 삼아 하나님 자신만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또한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분명 여러분은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여러분은 합당하게 부모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외적인 인간 생활일 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내적인 주요 요인이 옳아야 한다는 것이다. ...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요 요인이 되시게 해야 하며, 그런 후에야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할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안에서 이 주요 요인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한다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본분일 뿐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이 주요 요인이 여러분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과 고난이 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4장, 68-69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이 생존하려면 가정을 가져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 생활을 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을 해야 하는 본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생활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희년의 생활은 마땅히 주님을 충만히 누리며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생활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희년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8 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떤 것이 순조로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외의 다른 어떤 것에 둔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 ... 우리의 마음을 주님 외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둘 때, 모든 것이 고난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없고, 구원받지 않았으며, 그들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것들에 둘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 ...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이다. 좋지 않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교육을 받든 받지 않든, 모든 것이 고난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러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희년의 생활이신 그분을 누리게 된다.

희년의 생활은 다른 어떤 생활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누리는 생활이다. ...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으며, 그분의 안배하심은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오늘이 있는 것이 자신이

노력하고 분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분투하더라도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를 채우시고 얻으시고 소유해 주십시오. 저의 바깥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는 다만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건강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있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없어도 여전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다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평안하든 위험하든 우리에게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빌 1:20 하)라고 말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나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산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며, 희년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4장, 68-7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6-58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4권, 희년, 4장

찬송: 540 (英) 주가 내게 주신 자유 (中:401)

1 주가 내게 주신 자유 나를 해방시켰네
 죄의 권세 죽음의 침 내 몸 이미 떠났네
 (후렴)
 주가 승리 주시므로 십자가를 높이네
 생명의 힘 생명의 울 내게 강한 능력 돼.
 2 주가 나를 율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셔
 완전하신 은혜 아래 묶임 없이 살게 해

3 주는 육체 입고 오셔 내 죄 담당하셨네
 죄는 다시 내 몸에서 지워 얻지 못하네
 4 주는 죽음 음부 거쳐 썩지 않을 생명 돼
 모든 죽음 폐하시고 부활 능력 보였네
 5 주는 사탄 깨뜨리고 악령 심판하셨네
 나를 어둠 권세에서 생명 빛에 옮겼네
 6 모두 충분하게 하는 은혜 나를 덮으니
 나의 약함 가운데서 주 능력 온전해져

1/05 주일

아침의 누림

눅 4:16-22

16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어 성경을 낭독하시려고 일어서셨다.
 17 신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니,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다음과 같이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18 “주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 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19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0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였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시자,
 22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라고 하니,